

은은한 차향 · 그림이 함께하는 '화엄 세상'

한국차문화협동조합 티쿵이 여는 '차선일미, 붓칠장의 화엄의 바다'

차문화 체험은 물론 그림과 도자기도 감상하며 여유 있는 낭만의 여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차문화협동조합 티쿵은 '차선일미, 붓칠장의 화엄의 바다'를 8월 30일까지 한국문화상품관에서 연다.

이 전시는 차 향기와 어울리는 그림으로 화엄의 세계를 감상하는 자리로 생활 속의 차문화를 지향하는 티쿵(teacoop, 한국차문화협동조합)에서 발표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또한 지하철 풍경소리 그림작가로 유명한 박준수 작가를 비롯해 예술가공동체 '공동'의 기획전과 차와 어울리는 도자기 찻잔과 차도구도 감상할 수 있어 흥미롭다.

전시는 △ '공동'의 그림 전시회 '잔향(殘香)-여운이 남는 향기' △ 발표차에 대한 이해와 시음(매일 오후2시~4시) 코너 △ '차가 머무는 공간' 전 개의 찻잔 & 차가 사는 차통 △차와 차 도구 어울림 등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잔향'전은 예술가공동체이자 사회적 나눔 그룹인 '공동'의 그림 전시회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준수, 조원희, 정지아, 심

영신, 홍석민 등 다섯 명의 작품 69점이 전시된다. 특히, 박준수 작가는 '연꽃과 탑' 그리고 '명상하는 사람'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심영신 작가는 식물의 씨앗과 씨방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조원희 작가는 '선운사 동백꽃'과 '기다리다' 등 불교와의 인연을 작품으로 표현해 눈길을 끈다. 조 작가는 "때로는 강하게, 또는 천천히 스며들어 사람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의도로 기획했다. 그림을 보는 일이 마치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휴식이 될 것"이라고 전한다.

예술가공동체 '공동'은 전시, 행사, 아트 상품 등 수익금 창출과 후원단체 및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을 마련해 '공동성장플러스, 예술가, 어려운 이웃' 지원 사업으로 함께하는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전시 역시 수익금 일부는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발효차에 대한 이해와 시음'은 차를 마

시고 마음을 내리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발효차를 중심으로 차를 이해하고 시음하는 체험의 코너에서는 100여 종이 넘는 차 샘플이 선보인다. 이는 국내에서 유행하는 발효차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이해와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차 마시며 그림 감상 동시에

다양한 찻잔과 차도구도 선풍

발효차에 대한 이해와 시음도

또한 '차가 머무는 공간' 전시는 천 개의 찻잔과 차가 사는 집 차통(茶桶)이 소개된다. 국내 일반 작가 20여 명과 단국대 전통도예연구소 소속 작가 18명이 참여한다. 이번 전시는 차와 차 도구 관련, 작가와 소비자와 유통자가 협동으로 진행되는 전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차를 마시는 찻잔과 차를 보관하는 차통에 대해

국내 도자기 작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한국문화상품관 서해진 본부장은 "차 도구는 미학적 안목과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해 제작해야 한다. 오랜 시간 이어진 차도구학에서 찾은 '차의 호수'라 한다. 어떤 찻잔은 녹차의 호수가 되고, 어떤 찻잔은 홍차의 호수, 어떤 찻잔은 보이차의 호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각각의 찻잔은 찻물의 성질과 색깔에 따라 다르며, 시간과 풍경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차도구를 작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한다.

또한 최근 국내에 발효차가 유행하면서 차를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차통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적절한 차통에 대한 대안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차문화협동조합 티쿵은 2013년에 설립된 단체로 생활 속의 차문화 정립을 목표로 차와 차도구 등을 유통하고, 차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관련 사업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차를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관계를 넓혀가는 전 시도 마련하고 있다. (02)765-5634

정혜속 기자 bwjhs@hyunbul.com



한국차문화협동조합 티쿵은 '차선일미, 붓칠장의 화엄의 바다'를 8월 30일까지 한국문화상품관에서 연다. 사진은 전시장 전경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한눈에

경부박물관 개관 70주년 특별전 11월 1일까지

'불국토' 신라 불교문화의 융성 보여줘

'덕업일신 망라사방' (德業日新 網羅四方)은 덕업이 날로 새롭고,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국호 '신라'는 여기에서 따온 이름으로, 변화와 개혁 또는 혁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냈던 신라는 오늘날 유물도 남아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변화를 갈망했던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개관 70주년을 맞은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11월 1일까지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신라의 문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국내 특별전으로 '황금문화', '능묘', '대의교류', '왕경', '불국토' 등의 5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보 제83호 금동 반가사유상이 최초로 경주에 전시되는 것은 물론 금관총 금관 등 국가지정문화재 22건 30점을 포함한 600여 점의 다양한 신라 문화를 선보인다.

각 부분별 전시를 살펴보면 제1부 '황금문화'에서는 금관총 금관을 비롯해 경주

보문동합장분 출토 금귀걸이, 경주 노서동 출토 금목걸이 등 일제강점기에 출토된 신라 문화재가 전시된다. 오늘날의 시각적 표상으로서 신라가 부각된 것은 역사적적으로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시기부터였다. 근대적 학문인 실증적 역사학과 고고학, 미술사학의 관점에서 신라문화가 재조명되며 '문화재'라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등장했다. 그 대표적 사례는 1921년 금관의 발견이었다. 금관총에서 금관을 비롯해 처음 보는 신라의 황금 유물들이 세상에 불쑥 나타난 것이다. 이 황금문화의 절정을 1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2부 '능묘'에서는 신라능묘의 발굴로 1970년대에 큰 전환기를 맞은 우리의 문화재를 살펴볼 수 있다.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를 정점으로 보는 민족사관을 바탕으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가 집중적으로 조명된 시기가 바로 1970년대다. 광복 이후 신라능묘 출토품과 금제 관식, 은제 관모 등 천마총 · 황남대총의 화려하고 다양한 부장품 전시를 통해 신라 왕릉의 실체와의

의를 보여준다.

제3부 '대의교류'에서는 계림로 14호묘 보검, 황남대총의 봉수형 유리병, 식리총 식리 등을 전시한다. 또한, 신라 통일기의 활발한 대외교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경주 고등학교 소장 무인석상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제4부 '왕경'에서는 신라 왕릉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된 다양한 성격의 유물들이 전시된다. 월지의 용열굴무늬 기와와 보살화무늬 전, 황룡사터의 각종 공예품, 경주박물관 남쪽 부지에서 나온 '동궁아'가 새겨진 단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5부 '불국토'에서는 신라 불교문화의 융성을 보여주는 불상과 불교공예품들이 전시된다. 특히 국보 제83호 금동 반가사유상이 경주에서 처음으로 2주간 전시된다(8월 2일까지).

또한 경주 구황동 석탑의 국보 제79호 금제 아미타불좌상(8월 4일~11월 1일), 사천왕사터 출토 '동탑서'가 새겨진 금동장식, 경주경찰서 소장의 부처가 새겨진 탐신석(경주 외동읍 입실리 절터) 등도 주목된다. 이밖에 '신라'를 소재로 한 이응노, 박대성, 배병우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02)740-7535 정혜속 기자

크스님 법문 디지털 음원으로 재탄생

BTN불교라디오 '울림' 매주 목·금 방송

옛 크스님들의 법문이 디지털 음원으로 복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히 들을 수 있게 되었다.

BTN(대표이사 구본일)에서는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불교라디오 '울림'의 4개 채널 중 법문채널을 통해, 일반 후 다시 듣기 힘들었던 스님들의 법문을 방송한다.

BTN불교라디오는 前파계사 성전암 조실 철웅 스님과 前태고종 초대 종정 목담 스님의 법문이 담긴 옛 테이프를 입수해 지난 6월부터 복원작업을 했다.

요즘은 보기 힘든 릴 녹음기와 워 스테이션으로 50년 전 녹음된 크스님들의 육성테이프는 한달여간 잡음제거와 음원을 보정하고 클리닉 마스터링 등의 기술적인 작업을 거쳐 디지털 음원으로 재탄생했다. 크스님들의 법문은 7월 23일부터 BTN불교라디오 '울림'에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와 저녁 11시에 들을 수 있다.

매주 목요일은 종교를 뛰어넘는 거침없는 법문으로 알려진 전 파계사 성전암 조실 철웅 스님, 매주 금요일에는 前 청정종사로 시대의 스승이었던 태고종 초대 종정 목담스님 법문이 방송될 예정이다.



BTN은 불교라디오 '울림'을 통해 스님들의 법문을 복원해 방송한다.

이번 복원작업에 대해 BTN 구본일 대표이사는 "크스님들의 법문 복원 작업을 시작으로 잊혀져가는 옛 법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대를 초월하여 불자들에게 크스님들의 가르침을 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BTN은 개인, 문중 및 종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스님들의 음성 및 동영상의 법문 제보를 기다린다. (02)3270-3338 정혜속 기자



이번 전시에서는 국보 제83호 금동 반가사유상이 경주박물관에서는 처음으로 전시된다.

마하연여행사

예약 문의: 02) 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인도양의 찬란한 빛 구름도 머물다 가는 곳

스리랑카 라오스

여행 문의 상품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항주/보타/낙산 5일
-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 [민족의영산] 백두산 5일
- 서안/용문석굴/스미사 5일

인도 9일

델리-라지푸르-나란다-보드가야-바리나시-아그라

인도 11일

델리-바리나시-보드가야-라지푸르-바이살리-나란다-쿠시나기르-몰리니-키질라비스투-쿠탄-신카시아-아그라

미얀마

- 양곤-바간-헤오 5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오 5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오-짜이티오 7일

티벳 6일

성도-라사-임드록초-간제-시가체

티벳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사-장체-시가체-라사-난주역-하늘열차

1.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 책정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 불교행사 *
4. 추가 경비 일체 없는 가격 책정
5. 호텔/행사일정/식사 타사 비교 필수
6. 8인이상 출발 가능

- **스리랑카 완전 일주 8일** 출발일: 매주 월,월,수,금 출발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거리아-폴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 **스리랑카 6일 요금문의** 출발일: 매주 수요일 출발
- **라오스 6일** 출발일: 매주
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7일** 출발일: 매주

《 전세계 여행상품 20년의 노하우 마하연 여행사 만의 알찬 일정 》